

사랑의열매

2021 03



2021
03

전부를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사람들,
13년째 이어진
인천 쪽방 주민들의
그 특별한 나눔에 대하여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보내주신 사랑, 희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참 많은 사랑이 모였습니다.

나눔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어 114.5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62일간 나눔 여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내주신 사랑을 구석구석 잘 전달하겠습니다.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 페이스북 @chestkorea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오지랴(oz.lab)_ 유튜브에서 '오지랴'를 검색하세요.

- 인터뷰와 사진 촬영은 발열 검사와 소독을 마친 뒤 진행했으며, 사진 촬영 전후와 인터뷰 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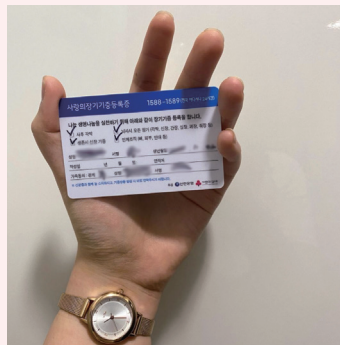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jj_a__abb

간만에 나들이. 날씨 좋아서 좋다~
#사랑의열매 #나들이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의 소원돌탑 희망나눔! 소원지와 사랑의 동전을 기부하면 사랑의 열매를 통해 어려운 아이들과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bl_ue_ming

누군가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생명나눔 #서약서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wkyung.lee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이기.
어린이집에서 매년 #사랑의열매 그리고 한국은행이 함께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이기 사업을 추진해 모은 성금을 #희귀난치병 그리고 저소득 주민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고사리손으로 넣은 동전들인데, 벌써 제출할 시기가 와서 한 장 남겨본다. 근데 엄마 때는 어릴 적 #사랑의뺑저금통이었는데, 너를 키우면서 내 걸어온 어릴 적 기억이 문득문득 소환될 때마다 잠시 추억 여행. #사랑의저금통 #기부천사 #기부의의미알려주기 #나누면서배운다 #6살 #55개월 #1691일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CONTENTS



04 열매인(人)터뷰

김상균 사랑의열매 신입 사무총장
“대한민국 나눔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06 모두의 나눔 _ C-SDGs 연계 배분 사업 성평등

단단하고 높은 유리 천장을 깨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12 나눔 이슈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중 신입 회장
“충남도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67 2021. 03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21년 3월 / 통권 167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1 MARCH



14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13년째 기부 이어온 인천 쪽방 주민들

18 **내 인생의 한마디**
아너 2500호 회원이 된 배우 김영철의 가입식
“나눔으로 세상의 봄을 불러오고 싶습니다”

22 **나눔동화구연**
설 맞아 동화구연으로 나눔 메시지 전한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김정숙 여사

24 **설 명절 지원**
만날 수 없어도 마음만은 풍성하길
온정 가득한 사랑의열매 설 명절 지원

26 **나눔 트렌드**
2021 기부 트렌드 콘퍼런스 개최
코로나19, 변화의 촉진제가 되다

30 **착한기업**
사춘기 소녀들의 고민, 착한 키스미가 해결합니다

32 **착한맛집**
푸른 파도를 타고 이른 봄이 밀려오는 전라남도 목포

36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37 **전국 지회 뉴스**

47 **이달의 아너**

48 **독자 페이지**





김상균 사랑의열매 신임 사무총장

“대한민국 나눔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제8대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전·현직 직원 중 최초로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 누구보다 사랑의열매를 잘 아는 만큼 임기 동안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서범세

15년 만에 이룬 큰 꿈

김상균 사무총장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17년간 몸담아온 금융계를 떠나 2006년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전북·충남·광주지회를 거치면서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쌓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만났다. 입사 초기 ‘다수를 위해 일하겠다’는 막연한 꿈은 시간이 갈수록 대상과 할 일이 명확해지면서 점점 영글었다.

“지난 10년간 내부에서 사무총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어요. 모두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많은 선배가 도전하셨죠. 저 역시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희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고민 끝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회 사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본인의 결정이 많은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해본 만큼 이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상균 사무총장은 15년간 머릿속으로 그려온 많은 일을 하나씩 이루어갈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탐스러운 ‘사랑의열매’를 맺기 위해

3년의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은 사랑의열매를 나눔문화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성금을 많이 모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나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배분과 전문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의열매가 되겠다는 김 사무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같은 방향을 보며 힘을 모으고 더 큰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는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예종석 회장님이 몇 가지 과제를 주셨는데요, 그중에는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근무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라는 것도 있어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김상균 사무총장은 취임식에서 현재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빨간 사랑의열매에 빗대어 신뢰·혁신·화합의 원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이 세 원이 각각 단단하게 속이 차오르고 커질 때 김 사무총장이 앞서 말한,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사랑의열매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사랑의열매가 어떻게 익어갈지 설레는 마음으로 김상균 사무총장의 행보를 응원해본다. 🍎

단단하고 높은 유리 천장을 깨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 대기업과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여성 임원이 하나둘 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양성평등을 이루었다고 말하기엔 이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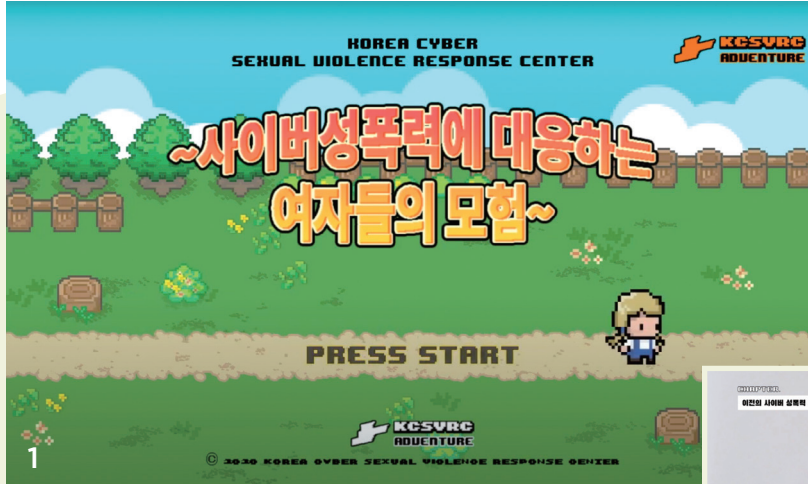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수년째 유리 천장 지수 최하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 사랑의열매는 우리 사회 곳곳의 '유리 천장'을 깨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각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흥





사랑의열매는 독자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인 C-SDGs의 16개 목표에 따라 영역별 배분이 이루어진다. 모두의 나눔에서는 매달 C-SDGs의 목표 중 하나를 선정해 주요 배분 사업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번 달은 5번 성평등과 관련한 사업을 소개한다.



사이버성폭력 피해 지원 및 인식 개선 사업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지난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업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사이버성폭력피해 경험자의 회복지원이다. 이는 상담과 심리치료, 불안피해 모니터링, 피해찰명물 삭제, 법률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피해경험자를 돕는 활동가 지원이다. 활동가들은 피해경험자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데, 건강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치료와 역량강화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성폭력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사건 지원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MINI INTERVIEW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신성연이 팀장

“활동이 늘 즐겁고 신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지원 활동가들은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피해지원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활동가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이런 점에서 활동을 돕는 실질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1, 2 사이버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해 제작한 영상



경력 단절·취약 계층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마을밥상 강사 양성 교육

사단법인 가배울은 2019년 삼성전자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경력 단절·취약 계층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토종 식재료로 건강한 식문화를 알리는 '마을밥상'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토종 식재료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토종 레시피를 개발해 보급하는 일도 맡는다. 마을밥상 강사들이 수업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토종 소농 여성 농민과의 직거래로 조달하고 있다. 유통망을 찾기 힘든 소농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농 상생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다. 그 외에도 사업 참여자들은 자원 활동으로 한부모 가정 반찬 꾸러미 지원이나 반찬 나눔에 참여하며 음식으로 만드는 나눔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2



3

- 1 여성농민의 토종 씨앗으로 자란 농작물
- 2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토종 레시피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 3 토종 식재료를 만든 건강한 밥상

MINI INTERVIEW

사단법인 가배울 전보배 매니저



현재 마을밥상 강사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심화, 고급 과정을 수료하고 올해부터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강사로 파견되어야 해요.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실습을 못 한 터라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행히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를 맡기겠다고 해서 실습 걱정은 덜었습니다. 작년에는 강의 실습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애먹었거든요.

토종 농사를 짓는 여성 농민과의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어디까지 왔나요?

여성 농민뿐 아니라 어머니의 토종 씨앗을 이어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분까지 총 13분과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토종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은 직거래 유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에요. 마을밥상 실습이 진행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을 듯합니다.

마을밥상 강사 교육과정이 기초·심화·고급까지 있어 1~2년은 참여해야 하는데, 경제활동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요.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아이 돌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분들도 있고요. 코로나19와 별개로 토종 식재료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때그때 제철 식재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컸어요.

3차 연도 사업은 어떤 점에 주목할 예정인가요?

첫째로는 강사 파견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예요. 둘째는 여성 농민들이 만든 토종 식재료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한 여권통문의 날 행사와 심포지엄

여권통문은 1989년 9월 1일 여성의 교육권·직업권·참정권을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성문화인권센터에서는 지난해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부산에서 여권통문의 날 행사와 심포지엄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한국 여성운동의 전통을 복원하고 널리 알려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나아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둔다.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보다 두 달 늦게 규모를 축소해 진행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여성통문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모습



MINI INTERVIEW

여성문화인권센터 이경애 국장

“부산에서 열리는 첫 여권통문의 날인 만큼 많은 준비를 했어요. 부산시민공원에서 여러 여성 단체가 모여 12년 전 그때처럼 여권통문을 낭독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죠.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면서 준비한 것을 거의 못 해서 너무나 아쉬워요. 하지만 제회를 무사히 마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앞으로 여권통문을 알리는데 집중할 계획이에요.”



중·장년 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와 자활 지원을 위한 노인 돌봄 준전문가 파견 사업 '5060 여성, 실버케어'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는 삼성전자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올해부터 나눔과꿈 사업을 시작했다. 중·장년 폭력 피해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상담 치료, 정서 치료, 서비스 제공자 책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이 끝나면 7~12월까지 노인 돌봄 준전문가로서 기존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의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파견된다. 요양보호사 역할과 가사활동, 가사 외 활동까지 포함하는 맞춤형 토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향후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MINI INTERVIEW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김향숙 소장·김소정 사무국장

“단순히 의지가 있다고 해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면접을 통해 자활 의지와 근로 능력이 있는지, 12월까지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기본 건강검진은 물론 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종합 심리 검사도 진행해요. 또 저희 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의미 있는 사업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1 각 분야 전문가가 사업 진행 내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문회의 2 참여자에겐 전문 상담과 직업 훈련을 진행한다.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증 신임 회장

“충남도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사랑의열매의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하 나눔캠페인)의 사랑의온도탑은 역대
최고 온도인 153.8도를 기록했다.

모금액은 198억 8,8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 늘어난 역대 최고액이다. 이런 눈부신
성과 뒤에는 나눔캠페인 제막 직전 취임한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증 회장의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리더십이 있었다. 글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대아그룹 총괄부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주)도원이엔씨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재경 서산시향우회 회장, 충남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
대한건설협회 대표 대의원 등을 맡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희망2021나눔캠페인 제막을 한 달 앞두고 신입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캠페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남 사랑의열매 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임 초기 전임 이관형 회장님의 훌륭한 성과에 부담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 성과를 근본으로 나눔으로써 따뜻한 변화를 이끌고, 지역사회 민간 복지 분야의 중추 기관으로서 이웃이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랑의열매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2011년 충청남도청과 연계해 도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한 것을 계기로 충남 사랑의열매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제안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가입을 결정하며 충남 3호 아너가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기부와 사회복지의 연결 고리에 대해 전문가인 사랑의열매의 도움을 받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충남의 다양한 복지 분야 중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를 꼽으신다면? 경제적 여건으로 꿈을 키우지 못하는 학생과 장애가 있는 분들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기부로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진행됐고, 행복하게 인생의 앞날을 맞이한 그들의 환

한 미소를 볼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또 제가 장학금을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면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충남 사랑의열매 회장으로서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하며, 꿈과 희망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로 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충남 사랑의열매에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물론, 나아가 모든 충남도민의 삶과 일 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민과 충남 사랑의열매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난해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38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모금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성금에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살자는 큰 뜻이 담겨 있기에 저와 사랑의열매 직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의욕 넘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눔 최고! 행복 충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취임식에서 성우종 신입 회장과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자신의 전부를 기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나눔

13년째 기부 이어온 인천 쪽방 주민들

올해에도 특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인천 쪽방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것. 2008년에 시작해 벌써 13년째를 맞았다. 모금함 앞에 줄을 서며 다음엔 또 언제 모금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의 귀한 마음이 담긴 아주 특별한 나눔이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인천쪽방상담소 박종숙 소장과 쪽방 주민 이정성 씨가 인터뷰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아주 특별한 나눔

올해에도 특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인천 쪽방 주민들과 인근 노숙인, 무료 급식소 이용 노인들이 마련한 성금 214만여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것.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벌써 13년째를 맞았다. 누적 기부액도 2,000여만 원에 달한다. 아주 어려운 형편임에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마음을 모은 쪽방 주민들의 이야기는 나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쪽방 주민들을 만난 곳은 인천 동구 만석동에 위치한 (사)인천내일을여는집 인천쪽방상담소 내 공동 작업장이었다. 볼펜 조립 등 부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곳이다.

“사랑의열매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정말 잘 알죠. 우리에게 도움도 주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성금도 모아주고… 여기 사람들은 사랑의열매 다 알아요.”

사랑의열매에서 나왔다며 “사랑의열매 아시죠?” 하고 인사를 건네니 작업장에서 일하던 쪽방 주민 이정성 씨가 사랑의열매 모르는 사람도 있느냐며 활짝 웃는다.

“늘 도움만 받아 미안해요”라는 한마디

쪽방 주민들의 기부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인천 쪽방상담소 박종숙 소장은 이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 13년 전 12월, 겨울의 어느 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받은 대기업의 물품 꾸러미 박스를 쪽방 주민에게 나눠주는 날이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우리는 늘 도움만 받네. 미안해서 어떡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곳을 이



“
저는 ‘오죽하면 그런 데 살아’라는 타박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그 관심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곳이 사랑의열매고요.
그래서 쪽방 주민들은 사랑의열매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



끌던 인천내일을여는집 이사장님이자 해인교회 이준모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럼 우리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까요?’라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주민들이 바로 모금함 주위로 우르르 줄을 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이었고, 현장에 있던 박종숙 소장은 그런 주민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며, 지금도 감동적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쪽방 주민들의 모금 소식은 이내 인근 노숙인과 무료 급식소 이용 어르신들에게까지 알려졌다. 그리고 “우리도 하면 안 돼요?”라며 동참하길 원했

다. 공짜로 밥을 얻어먹고 사는 자신들이 빠질 수 없다면서 말이다.

전부를 주는 사람들

“하루 1,000원으로 생활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1,000원을 모금함에 넣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성금을 넣으셔서 물어요. 이렇게 적은 돈도 괜찮냐고요. 하지만 전 알아요. 이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다는 것ですよ. 이보다 큰돈이 또 있을까요?” 전 재산을 기부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쪽방

주민들은 모금함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다. 지갑에 있는 전부, 주머니에 있는 전부를 말이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가진 전부일지 모른다. 그렇게 모은 성금은 사랑의열매에 전달됐고, 사랑의열매는 그야말로 발각 뒤집혔다. 인천쪽방상담소 공동 작업장은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시작된 곳인데, 도움을 받은 곳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성금을 보낸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쪽방 주민들의 기부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감사의 편지와 과일 선물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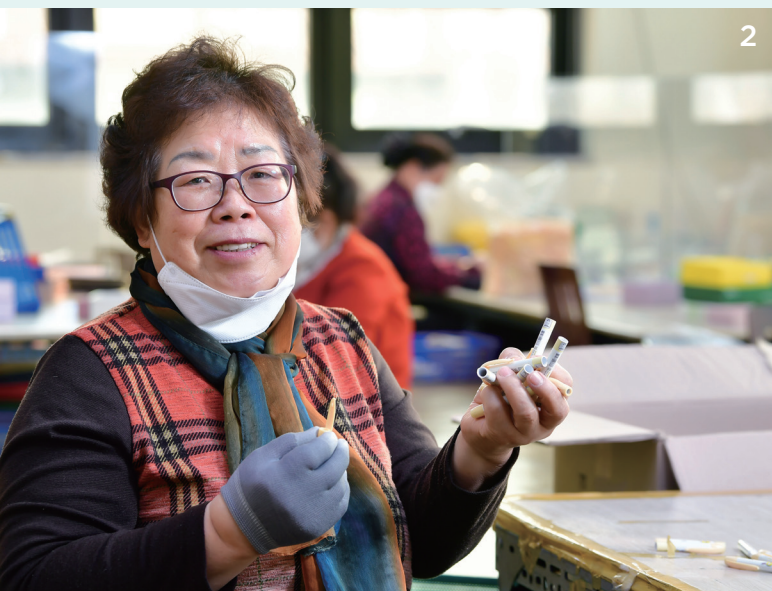
“주민들도 깜짝 놀라셨죠. 너무 적은 돈이라 미안한 마음으로 모았는데, 그런 반응이 나왔으니까요. 난생처음 느껴보는 뿌듯함에 정말 행복해하셨어요. 그런 나눔의 기쁨은 이분들의 자립과 자활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답니다.”

또 언제 모금해요?

감동적 영화 같은 쪽방 사람들의 이야기는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주민들은 “또 언제 해요?”, “그다음은 언제 해요?”, “언제부터 모아요?”라며 박종숙 소장을 재촉한다.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모금함은 단 하루만 비치한다. 주민들은 폐지를 줍고, 고물을 팔고, 불펜을 조립해 돈을 모은다. 자신의 생계뿐 아니라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말이다. 이제는 성금을 하기 위해 1년 동안 돈을 모으는 주민도 제법 많다. 쪽방 주민들에게 나눔이란 대체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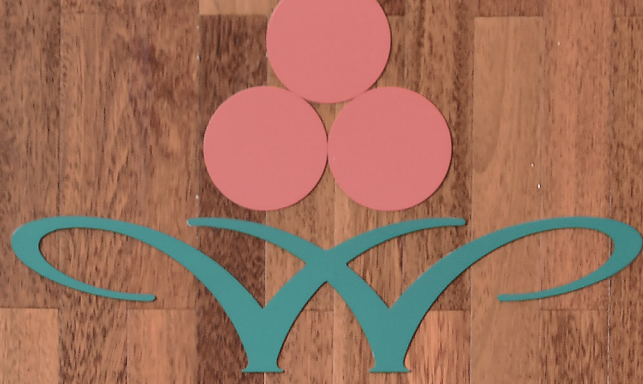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외로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또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고마움과 미안함도요. 그런데 나눔은 이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북돋아줍니다.”

박종숙 소장은 나눔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 도움을 준 사람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면서 말이다. 쪽방 주민 이정성 씨는 주민들의 기부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전했다. 얼마 전 소래포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텃갈 100세트를 구입해 쪽방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기도 했다. 장관을 넘어 대통령에게까지 선물을 받은 쪽방 주민들은 박종숙 소장에게 또다시 묻는다. “모금, 또 언제 해요?” ❀



2

1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시작한 인천쪽방상담소 공동 작업장은 가장 성공적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은 공동 작업장에서 일하는 쪽방 주민들
2 공동 작업장은 쪽방 주민들의 자활을 돕는 소중한 공간이다.



아너소사이어티
HONG KONG SOCIETY



아너 2500호 회원이 된 배우 김영철의 가입식

“나눔으로 세상의 봄을 불러오고 싶습니다”

SBS <야인시대>의 김두한, KBS1 <태조 왕건>의 궁예 등 여러 드라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여온 배우 김영철이 아너 소사이어티 2500호 회원에 등재됐다. 가입식에서 가곡 ‘봄이 오면’을 열창한 그는 “이웃의 삶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글 강보라 사진 이승재

배우 김영철이 새긴 아너 2500호의 의미

김영철 아너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사랑의열매에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조용히 기부를 실천하겠다고 하며 줄곧 사양해왔다. 그러다 오랜 설득 끝에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부르는 ‘기부 선순환’에 동의한 그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을 결심했다. 2500호 회원에 등재된 김영철 아너는 그 의미를 특별하게 새겼다. “먼저 1호부터 2499호까지, 앞서 좋은 일을

해주신 아너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2500호가 되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살아가면서 ‘2500번 이상 좋은 일을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아너 회원 가입을 기점으로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김영철 아너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삶도 소중하지만, 진정한 삶은 나눔으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올해로 제가 69세가 됐는데, 이제야 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담장 넘어 이웃과 우리나라, 내가 사는 지구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나눔이라는 세상에 새롭게 눈떴다는 김영철 아너의 고백에 벌써부터 다음 행보가 기다려진다.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로 나눔에 눈뜨다

나눔에 눈뜨는 계기를 말할 때 KBS1 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빼놓을 수 없다. 이 프로그램 진행자 김영철 아너는 동네 골목길을 걸으며 이웃과 소통하거나, 숨은 이야기를 들

려준다. 간장계장집에서 밥을 먹다 혼자 다섯 남매를 키운 사장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하고, 유기견 센터, 목공소, 탈 공방 등을 찾으며 주변 소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꾸밈없이 보여준다. 부업으로 면장갑 뒤집는 할머니들을 만났을 때는 아예 자리를 깔고 앉아 일손을 보태기도 했다. “장갑 하나 뒤집는 데 6원”이라는 말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한 생활의 향기가 담겨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는 잔잔하면서도 먹먹한 감동을 준다. “힘들게 사는 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촬영을 하면서 웃기가 미안할 정도였으니까요. 찾아가는 일 자체가 폐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죠.”



어려운 형편임에도 서로 돕고 사는 이웃의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은 적도 여러 번이다. ‘빈민의 작은 등불’로 불리는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 신부를 만났을 때도 그랬다. 연말을 맞아 홀몸 어르신을 위해 준비한 식료품 비닐봉지 세트를 보고 “참 고마운 분이시다”는 말과 함께 눈물이 터져나왔다. 푸른 눈의 신부가 반세기 동안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누며 봉사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다. “봉지 안에 라면 하나, 김 하나... 그게 뭐라고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게 뭐라고 우리는 나누지도 못하며 살았는지...”

어려운 이웃을 살리는 ‘김영철 효과’

김영철 아너는 “나이가 드니 이웃과 어깨동무하면서 호호하는 게 참 좋다”고 말한다. 그렇게 이웃과 함께하며 나눔의 세계에 눈뜨고 아너가 된 것이다.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 나온 동네는 실제로 방문객이 늘어나는 ‘김영철 효과’를 본다고 하니 그의 선한 영향력은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김영철 아너는 “시작할 때와 달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안성에 갔을 때, 유럽에서 성악가로 활동하다 화덕 피자집을 운영하는 주인을 만났어요. 가게 2층에 공연장이 있어서 둘이 ‘봄이 오면’을 불렀는데, 봄이 와서 산에 들에 진달래 피듯 우리 이웃의 삶에도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동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소상공인의 봄’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1 김영철 아너가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자원개발본부 신혜영 본부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종석 회장은 김영철 아너를 환영하며 나눔 선순환에 동참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했다.
2 “나눔이란 사랑이다!” 는 나눔 메시지를 전한 김영철 아너는 이웃사랑을 다짐하며 “앞으로 2500번 이상 좋은 일을 하며 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3 이웃들의 밝은 내일을 기원하며 등불을 밝히는 김영철 아너

“동네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힘들수록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어깨를 보듬는 데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이웃들의 나눔은 작고 소소했지만,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집밥처럼 큰 힘이 있었다. 동료와 점심 도시락을 나눠 먹는 성북동 양말 공장 할머니, 혼자 살면서도 ‘이

만하면 부자’라고 만족해하던 창원 마산합포구 할머니들... 김영철 아너는 나누는 이웃의 삶에서 오히려 풍요롭고 여유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세상의 봄’을 앞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눔이다. 일상에서 나눔과 함께할 때 이웃의 마음과 내 마음이 진달래처럼 활짝 핀다. 김영철 아너의 활동에 앞으로 나눔의 꽃길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김정숙 명예회장이 들려주는 나눔구연동화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보러가기



설맞아동화구연으로 나눔 메시지 전한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김정숙 여사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김정숙 여사가 동화구연을 선물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명절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설날에 깃든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다. 김정숙 여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하는 훈훈한 이야기를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사랑의열매

직접 동화구연에 나선 김정숙 여사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김정숙 여사가 설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동화구연에 참여했다. 사랑의열매는 어린이들에게 설 명절과 나눔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나눔동화구연을 기획하고, 김정숙 여사가 직접 동화구연에 참여했다. 김정숙 여사가 구연한 동화는 설날 만두

에 공동체의 나눔 정신을 담은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글 채인선·그림 이억배, 재미마주)다. 손 큰 할머니가 설날을 맞아 숲속 여러 동물과 함께 '세상에서 제일 큰 만두'를 만든 뒤 배고픈 동물에게 나눠줘 모두 배불리 만두를 먹는다는 이야기다.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명절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통해 우리 설날에 깃든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다. 대가족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설날을 맞이할 어린이들에게 시골집을 배경으로 할머니의 인정이 펼쳐지는 이 동화는 김정숙 여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실려 실감 나게 전해졌다.

따뜻한 목소리로 나눔의 행복 전해

김정숙 여사의 동화구연은 6분 30초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해 지난 2월 8일,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촬영한 이 영상에서 김정숙 여사는 동화분위기에 맞게 생활한복을 입고 1인 다역을 소화해냈다. 김정숙 여사는 구연을 마친 후 “어린이 친

구들도 손 큰 할머니처럼 작은 것부터 나누다면 친구들의 활짝 웃는 웃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행복’을 전했다. 이번 영상은 사랑의열매 나눔체험관 나눔 교육 교재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는 미래 세대가 생활 속에서 나눔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초·중·고등학생 나눔공모전’을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나눔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김정숙 여사는 동화구연 촬영을 마친 뒤 앞으로도 어린이들과 함께 나눔으로 희망을 만드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상에서 제일 큰 만두를 배고픈 동물들과 나눠 먹는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한 장면

배고픈 동물들이 한꺼번에 만두로 달려들었습니다.

'온택트(溫-tact) 설명절 마음 잇기' 설명절 나눔 캠페인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명절을 앞두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으로 함께해주세요.



기간: 2021.2.1.~ 2021.2.15.



만날 수 없어도 마음만은 풍성하길

온정 가득한 사랑의열매 설 명절 지원

코로나19는 우리의 최대 명절인 설 풍경마저 바꿔버렸다.

설렁한 명절 분위기에 우리 이웃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기 마련이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발 빠르게 명절 지원에 나서며 곳곳에 따뜻함을 전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지원 규모 커지고, 마음은 있고

이번 설엔 힘든 시기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9억 원을 증액한 134억 원을 지원했다. 현금 74억여 원과 쌀, 김치 등 식료품·지역상품권 등 60억 원 상당의 현물을 전국의 복지 기관과 지자체에서 선정한 2,137개의 배분 협력 기관을 통해 전달했다. 저소득 가정 21만여 명을 비롯해 소상공인·홀로 사는 어르신·쪽방 거주민·아동 청소년 등 총 26만여 명이 온정을 전달받았다.

한편 사랑의열매는 설 명절 지원과 함께 15일 동안 '온택트(溫-tact) 설 명절 마음 잇기'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언택트 트렌드를 반영한 비대면 기부 방식으로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기간 동안 모금한 성금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게 설 명절 월동비와 식료품 등으로 전달했다.

설 앞두고 전국에서 사랑을 전해

이번 설 명절 지원은 사랑의열매 중앙회는 물론, 전국 18개 지회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중 대구 사랑의열매는 저소득 가정, 쪽방 거주민, 노숙인 쉼터 입소자를 위한 설 명절 위문금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 지원 사업으로 7억 6,000만 원을 지원했다. 대전 사랑의열매는 저소득 주민 3,672세대와 사회복지시설·기관 2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10개 시군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6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 사랑의열매 설 명절 지원 사업은 총 10억 원으로 도내 저소득 어르신,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 한부모 가정 등 약 1만 5,000명에게 지역 화폐, 영양 키트(식료품)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했다. 함께 진행한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 지원 사업에는 팬데믹으로 생계가 어려운 762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씩 총 3억 8,100만 원 규모를 지원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의 손길

강원도 춘천시 나눔봉사단은 한과, 국수 등으로 구성된 행복 박스를 제작해 300가구에 전달하며 설맞이 준비를 도왔다. 또 경남 사랑의열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탁한 5,000만 원으로 저소득 노인 1,000세대에게 설 명절 키트를 배달했다. 마지막으로 인천 사랑의열매에는 시민들의 귀한 성금과 성품이 줄을 이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1,000만 원, 도로환경미화원 청우회에서 300만 원을 기탁했다. 황지운 가족은 백미 1,000kg을, 최순영·신충현 부부동대장은 마스크 1,004매를 전달하는 등 명절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



1 설 명절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 지원에 13억 8,000만 원을 전달한 경기 사랑의열매
2 인천 사랑의열매에 백미 1,000kg을 기부한 황지운 가족
3 경남 사랑의열매에 5,000만 원을 전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4 행복 박스를 제작해 300가구에 전달한 강원 춘천시 나눔봉사단

2021 기부 트렌드 콘퍼런스 개최

코로나19, 변화의 촉진제가 되다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의 트렌드 연구가 벌써 일곱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에 발표한 '2021년 기부 트렌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만들어낸 기부와 모금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비영리 현장에서 나타난 위기와 도전, 변화를 점검해보았다. 지난 2월 2일에는 연구진이 직접 발표하는 '2021 기부 트렌드 콘퍼런스'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다.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지면에 담았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참고자료 2021 기부 트렌드-코로나19, 변화의 촉진제가 되다(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2021 기부 트렌드 콘퍼런스에 참여한 (왼쪽부터) 유승권 이노소셜랩 이사,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민영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연희 교수,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박미희 책임연구원,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노진선 소장,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지속가능연구소 김민석 소장



코로나19 기부와 모금 트렌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리고 이는 나눔 영역에 변화의 촉진제가 되어 많은 것을 바꾸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 기부자 및 기업 기부자, 그리고 모금 활동에 나타난 트렌드를 여덟 가지로 정리했다.

1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기부 트렌드 콘퍼런스
2 축하 메시지를 보낸 사랑의열매 예중석 회장



1 —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상생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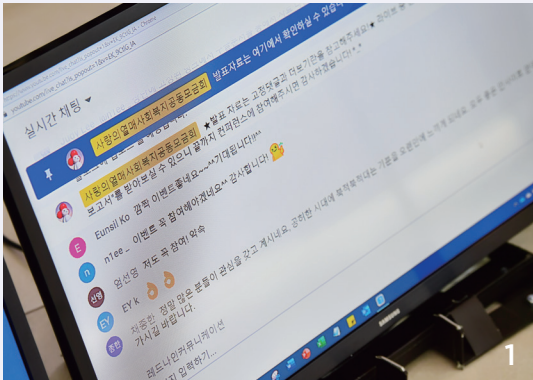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때문에 기부나 모금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기부는 대형 재난 모금 사상 최대 모금액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서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다 같이 극복하자는 연대의 힘을 기부 행위를 통해 보여준 결과다.

2 — 기부자가 앞장선 다양한 판 깔기

MZ세대(밀레니얼 세대)의 기부 참여가 처음으로 통계 수치로 확인되었다. 사랑의열매 자료를 보면 2014년 세월호 특별 모금에 비해 코로나19 특별 모금에 참여한 20대 기부율이 6.7배 증가했다. 또 기부자가 주도해서 기부의 '판'을 만드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모금 캠페인, 전 세대로 확산한 팬덤 기부 등이 대표적이다.

3 — K-방역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기업사회공헌

기업은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해야 상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전사적 대응을 했다. 그동안 사회공헌에 무심하던 기업들, 특히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 공헌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 임시적·일시적 대응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기업사회공헌이 어떤 모습과 성과를 보여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빨라진 변화의 속도, 보다 복잡해진 이슈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모금기관은 온라인 모금 활동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다만 모금 방식의 변화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부자와 신뢰 관계 형성의 어려움, 모금 활동을 둘러싼 투명성이나 '빈곤 포르노'로 회귀하는 모금 콘텐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5— 언택트(untact)의 일상에서 온택트(ontact)로 연결하고 위로하다: 다양한 캠페인 이야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공연 예술가 등을 위해 '이웃에 대한 상상'을 내걸고 이들을 돕는 모금 캠페인이 펼쳐졌다. 또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캠페인의 주제가 되는가 하면, 고립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캠페인이 등장하기도 했다.

6— 코로나19, 우리 동네 이야기

코로나19는 기존 재난과 달리 '내 지역, 내 이웃'의 문제이자 곧 '나의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착한 임대료 운동, 동네상인 지원, 기업의 소재지에 대한 기부 증가 등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7— 빠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압박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모금 시작 직후인 3월 초부터 기부금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 여론이 형성됐다.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의 인식이 암묵적으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8— 국가, 민간 기부의 선을 넘보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무지?

정부에서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공부문이 시민들의 기부활동에 안일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민사회 부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를 반영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 실시간으로 연구자들에게 질문하는 콘퍼런스 참가자들

2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노진선 소장

코로나19 기부와 모금의 현주소

코로나19, 언택트 모금 캠페인 스냅샷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는 효과적인 모금 방법을 새롭게 탐색해야 했다. 대면 모금 대신 온라인 모금으로 빠르게 전환했고, 오프라인 캠페인을 버추얼 행사로 진행하는 등 많은 사람에게 공유·전파하는 기회가 되었다. '언택트 환경에서 온택트 할 수 있도록' 창의적 방법들을 시도했다. 다양한 협업 방식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자원이 모금 캠페인에 결합하며 나눔문화 지평을 확장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이벤트와 챌린지로 기부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점차 호응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구진은 모금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며, 새롭고 창의적 메시지와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키워드로 보는 모금 캠페인 스냅샷

- ① 전 세계의 팬데믹, 남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다
- ② 닫힌 문을 '~키트(kit)'로 열다
- ③ 대면 모금의 빈자리에 '온라인 모금'이 자리 잡다
- ④ 시민들 스스로 나서서 기부자가 되다
- ⑤ 언택트(un-tact) 시대에 온택트(on-tact)는 필수다
- ⑥ 새로운 기술과 자원들이 모금 캠페인에 결합되다
- ⑦ 코로나 블루, 기부자도 피로하다

코로나19가 보여준 기업사회공헌의 스냅샷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사회공헌은 기부금·물품 기부, 방역 활동, 모금 플랫폼 제공 등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만 했다. 그럼에도 담당자들은 부족함과 답답함을 느꼈다. 기존 방식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에 집중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 기업사회공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임직원 봉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개별화·가족화된 봉사 활동을 기업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연구진은 조심스레 예측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사회공헌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장기화, 일상화된 재난에 대응할 전략과 지구력이 부족한 점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기업의 인프라와 전문 인력, 핵심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이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업이 잘하는 것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결한다면 이번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

키워드로 보는 기업사회공헌 스냅샷

- ① 매출은 줄었으나 기부금은 오히려 늘었다
- ② 전사 차원의 적극적 대응, 지속가능 경영(ESG)의 중요 대응 과제 '코로나19'
- ③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있다
- ④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코로나19에 올인할 수도 없다
- ⑤ 온라인 사회공헌은 아직 실험 중
- ⑥ 임직원 봉사 활동이 제일 큰 걱정거리
- ⑦ 코로나19, 기업사회공헌 변화의 기회?
- ⑧ 결론,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전이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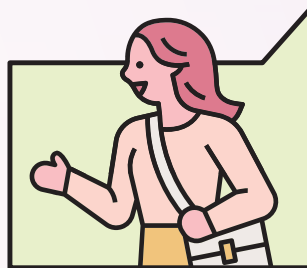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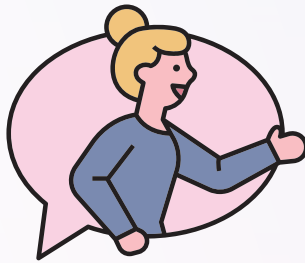


소녀를 위한 한국키스미의 감성 나눔

사춘기 소녀들의 고민, 착한 키스미가 해결합니다

목적과 대상이 분명한 지원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속옷을
선물하는 한국키스미의 '내안(安)애(愛)' 사회공헌
사업이 그렇다. 예민한 사춘기 소녀들을 보듬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섬세한 지원으로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글 강보라 사진 한국키스미, 사랑의열매



- 1 하트 모양의 실이 부착된 착한 키스미 제품. 이 제품을 구입하면 여성 청소년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 2 연말이면 아이 메이크업 코너에서 착한 키스미 캠페인이 진행된다. 8년째 이어지는 캠페인에는 소녀들을 응원하는 한국키스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 3 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속옷은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다. 체형과 취향에 맞는 속옷은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창 패션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기, 겉옷이 아닌 속옷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많다. 바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이다. 이들의 1인당 생계급여비는 약 22만 원(2019년 기준). 여기에 주·부 식비, 연료비 등 필수 항목을 제하면 의복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평균 2만 원에 불과하다.

1년에 한번, 착한 키스미로 변신하다
 아이 메이크업 브랜드 한국키스미는 '나다운 나를 이루어주는 브랜드로서 언제나 고객 곁에서 함께 나아간다'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매출의 일부를 여성을 위한 사회 공헌에 사용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착한 키스미' 캠페인이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공익 연계 마케팅으로 히로인메이크 라인의 화장품을 구매하면 판매 금액의 일정액이 기부되는 방식이다. 2013년부터 진행한 연례행사로 기부금은 여성 청소년의 체형에 맞는 속옷과 생리대,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 2018년부터는 '소녀들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고, 주 고객인 여성이 미래 세대인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며 상생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키스미에서 매년 지원해주셔서 제 몸에 꼭 맞는 속옷을 직접 골라 살 수 있어요. 예쁘고 청결하게 잘 관리해서 입고 다니겠습니다!”

-이든아이빌 000 아동

“자립생활관의 경우 모든 위생 물품은 대학생 아이들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돈도 빠듯한데, 이번 지원 덕에 생리대 같은 필수 위생용품을 넉넉히 구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운자립생활관 000 선생님



감성 지원으로 사춘기 소녀들의 자존감을 지키다

2차 성장을 맞이하는 여성 청소년은 개인의 체형과 선호에 따라 속옷과 내복, 양말 등을 개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구매 활동으로 자신의 취향과 경제적 소비까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민감한 사춘기에 터놓지 못하는 고민을 해결해줘 심리적 만족과 정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키스미의 나눔 철학, 나눔명문기업으로 인증

지난 8년간 키스미라는 이름으로 나눔 활동을 지속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사회공헌 롤모델을 제시하는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통해 나눔 문화를 이끌고 더 나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매년 연말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키스미' 캠페인은 기업이 이끄는 모범 사례 중에 하나이다. '착한 키스미'로 2020년에도 5,032만 9,700원을 기부했고, 누적 기부금이 5억 원을 넘는 상황이다. 한국키스미는 “지난 8년, 그리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에도 어김없이 나눔을 이어갈 수 있어 기뻐다”며, “앞으로도 소녀들이 따스한 나눔을 통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한국키스미의 섬세한 지원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

착한맛집



푸른 파도를 타고 이른 봄이 밀려오는

전라남도 목포

목포의 봄은 푸른 물결을 타고 일찍 찾아온다. 윗동네에 따뜻한 바람이 닿기도 전에 목포 곳곳에 봄기운이 번진다. 특히 날이 갈수록 푸른빛이 짙어지는 다도해의 운치는 오래도록 기억될 봄 풍경이다.

글 이선희 사진목포시청





1



2



3

1 두마리 학이 비상하듯 날개를 펼친 모습의 목포대교 2 두사람이 나란히 갯을 쓰고 있는 듯한 형태의 갯바위 3 봄이 되면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는 유달산

낭만이 물들어가는 항구도시

목포 하면 누구나 항구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예전에는 항구를 이별의 절절한 슬픔과 아픔이 서린 곳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요즘은 낭만 항구 목포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 개통한 목포해상케이 블카가 낭만적 분위기를 더한다. 국내 최장 길이인 3.23km로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다. 탑승 후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만 이동하기에 목포 시내와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청량한 풍경이, 해 질 무렵에는 환상적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영혼도 쉬어 가는 유달산

유달산은 노령산맥의 마지막 봉우리이자 다도해로 이어지는 서남단 땅끝에 자리한 산이다. 면적 140헥타르(약 140만 제곱미터), 높이 228.3m의 비교적 작고 낮은 산이지만 오랫동안 목포의 대표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산의 또 다른 명칭은 '영달산'으로 영혼이 거쳐 가는 곳이라 해 이름 붙었다. 유달산에는 기암괴석이 많은데 저마다 전설과 사연이 전해 내려온다. 대표적으로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일등바위(울동바위), 심판을 받은 영혼이 대기하고 있다가 극락세계로 간다는 이등바위(이동바위) 등이 있다. 유달산에서 내려다보는 목포 시내와 다도해의 전경이 특히 아름답다.

학이 비상하는 목포대교 & 천연기념물 갯바위

목포대교는 두 마리 학이 목포 앞바다를 날아오르는 듯 날개를 펼친 모습을 형상화했다. 낮에도 멋진 경치를 자랑하지만, 하늘과 바다가 붉은색으로 물드는 낙조 때 아름다움이 배가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갯바위는 약 8,000만 년 전 화산재가 굳어진 용결응회암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갯을 쓰고 있는 독특한 형태다. 예전에는 배를 타야 했지만, 지금은 보행교를 설치해 자연이 만들어진 신기한 조각품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

'맛의 도시' 목포의 착한맛집을 소개합니다



2019년 국내 최초로 '맛의 도시'를 선포한 목포는 뛰어난 맛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음식이 최고 관광자원으로 꼽힐 만큼 무엇을 먹어도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다. 그중에서도 사랑의열매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맛을 선사하는 '착한맛집'을 소개한다.



목포 토박이가 재현하는 엄마 손맛 **빛고을**

김정희 대표는 20년째 고깃집을 운영해온 만큼 간간하게 좋은 고기를 선별한다. 단골 사이에선 곁들여 나오는 반찬까지 맛있다고 소문날 만큼 타고난 남도 손맛을 자랑한다. 애호박찌개도 이 집의 인기 메뉴 중 하나.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 엄마가 끓여주는 그 맛을 떠올리게 한다는 후문이다.

📍 전남 목포시 포미로9번길 7 ☎ 061-283-8366



28년의 독심이 담긴 참치 전문점 **진참치**

김안룡 대표는 28년 전 일식 조리사로 입문해 참치에만 20년째 매진하고 있다. 손님상에 오르는 음식은 반드시 그의 손을 거치기에 한결 같은 맛을 유지한다. 해동은 물론 사소한 조리 방법 하나까지 본인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유지해 한층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 무엇보다 재료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만큼 퀄리티 높은 음식을 완성한다.

📍 전남 목포시 원형동로 14 ☎ 061-287-7640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클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어린이 보호 차량 개조 지원을 돕는 펀딩을 진행한다. 글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어린이 보호 차량 개조 지원 사업

“부담스러운 개조 비용... 차량이 없다면 아이들은 어떡하죠?”

전국 4,600대 차량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오는 5월 31일 이후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에 황색 도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경광등·보조 발판을 미설치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감당하기에는 차량 개조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악의 경우 차량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모금 기간 2021년 3월 31일까지

목표 금액 350만 원

모금 사용 예정 차량 도색, 경광등·보조 발판 설치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 → 캠페인 → 클라우드펀딩

중앙회



폰 케이스 판매 수익금 1억 4,000만 원 기부한 래퍼 이영지

래퍼 이영지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 두기 메시지가 들어간 '나 가지마' 폰 케이스를 제작했다. 그러고는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를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며, 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1시간 만에 2,200개가 팔리는 등 1억 원이 넘는 판매 수익을 기록했다. 이영지는 약속대로 폰 케이스 수익금 전액인 1억 4,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으며, 기부금 사용 방향에 대해 사랑의열매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기부금은 그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의도시락과 심리 지원 사업, 그룹홈 아동 영양 지원 사업, 학대 피해 아동 심리 정서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나 가지마' 폰 케이스를 통해 나눔에 동참해준 모든 분과 함께 한 것이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기부에 뜻을 모아준 것처럼, 코로나19도 모두가 함께 노력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헤리티지자산운용, 나눔명문기업 84호로 가입

지난 2월 8일 금융 투자회사 헤리티지자산운용(대표 송현석)이 3억 원을 기부하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84호에 등재됐다. 이번 가입은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 사회와 동반 성장한다'는 운영 철학을 실천하며,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을 돕고자 이루어졌다. 헤리티지자산운용 송현석 대표이사는 "기업이 수익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이고, 기부는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며 "헤리티지자산운용은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헤리티지자산운용은 '한 해 당기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회사 정관에 따라 지난해 비영리단체, 퇴소를 앞둔 보육원 청소년 지원 등에 총 10억 원 상당을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서울

부산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지원

서울 사랑의열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위기가구 중 복지 지원이나 타 후원금 등을 받지 않은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약 800가구에 총 5억 4,500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시이해유 복지기획관은 “서울 시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서울 사랑의열매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부산아너클럽, 전·현 회장 나눔명문기업 공동 가입

(주)에스제이탱커(대표 박성진)와 (주)지맥스(대표 정성우)가 각각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박성진 대표는 제2대 부산아너클럽 회장을 역임했으며, 정성우 대표는 현재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성진 대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가입했는데 올해 첫 회원이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정성우 대표는 “부산아너클럽 전임 회장과 함께 공동 가입해 나눔이 배가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The Best 착한가게’ 선정, 감사패 수여

서울 사랑의열매가 ‘The Best 착한가게’ 490여 곳을 선정하고, 분야별 The Best 착한가게 10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2010년부터 약 11년간 기부를 이어온 동일기획 윤은이 대표는 “지난해 경영난을 겪으며 기부를 중단할 수도 있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위하고 자مام을 다잡았다”고 말했다. 권마취통증의학과의원 권용식 원장은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며 감사를 전했고, 아주약품(주) 장경환 차장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기관 37개소에 복지 사업비 지원

부산 사랑의열매는 ‘2021년도 신청 사업 및 복권기금 사업 전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부산 지역 사회복지 기관 37개소에 복지 사업비 12억 3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는 2021년 배분 사업에 선정된 기관·시설·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 수행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 사랑의열매는 더욱 다양한 배분 사업을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대구팔공컨트리클럽, 이웃사랑 실천

1987년 개장한 이후 대구 시민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대구팔공컨트리클럽(대표이사 박한석)이 대구 사랑의열매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코로나19 극복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한 지난해 3월 이후 이웃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추가 기부를 결심한 것. 박한석 대표이사는 “대구 시민이 한마음으로 더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성금은 대구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와 생계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엔프라니, KCIP한국주철관·진방스틸, 화장품 20만 개 기부

엔프라니(주)(대표 김태훈)가 KCIP한국주철관·진방스틸(주)과 함께 자활·근로자 및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화장품 20만 개(5억 5,5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화장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자활 여성과 현장에서 그들을 돕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지원한다. 김태훈 대표는 “매년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OSG(주), 임직원 정성 모아 마련한 성금 기탁

한국OSG(주)(회장 정태일) 임직원들이 나눔을 실천하며 대구 사랑의열매 사랑의온도탑 수은주를 높였다.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은 성금은 총 5,096만 원이다. 정태일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임직원들이 올해도 마음을 모았다”며 “대구의 더 많은 기업이 나눔을 실천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 모금액 전달

지난 2020년 인천 사랑의열매와 인천 서구청은 지역화폐 플랫폼 '서로e음' 앱을 이용한 손쉬운 기부 활성화 협약을 맺고 '서로도움' 기부 플랫폼을 오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으로 2월 초까지 1,100건이 넘는 개인 기부가 이뤄졌으며, 1,2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 성금은 서로도움 사례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정한 서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8가구에 전달했다.

광주



(주)필코스메틱코리아,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기탁

(주)필코스메틱코리아(대표이사 임혜성)는 광주 사랑의열매에 마스크 5만 장과 손 소독제 1만 개를 기탁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이웃들을 위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광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혜성 대표이사는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구단 상품 판매 수익금 기부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대표이사 최만희)이 광주 사랑의열매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50만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팬들을 대상으로 구단 상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광주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 전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최만희 대표이사는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창단한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대전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선별진료소 후원

지난 2월 8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원장 김한곤)은 대전시 관내 선별진료소를 후원하기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대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으로 지친 의료진에게 지원할 위문품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공공 선별진료소 6곳과 의료진 520명이다. 사전 설문문을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확인했으며, KF94 마스크, 간식, 건강 보조식품 등을 지원했다.



대전원예농협공판장 중도매인, 설맞이 농산물 지원

대전원예농협공판장 중도매인 일당은 설 명절을 맞아 1,0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대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대전원예농협 과일 중도매인 방차석 회장과 채소 중도매인 서용원 회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중도매인이 동참해 대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유용한 농산물을 전달할 수 있었다. 방차석 회장과 서용원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이웃들에게 힘이 될 것을 약속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행복나눔 성금 쾌척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가 울산시 저소득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1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성금은 임직원 일동이 매월 임금의 1%를 기부해 조성하는 'SK 1% 행복나눔기금'을 통해 마련하며, 울산 지역 내 난치병·소아암 아동 치료비와 저소득 장애인 세대를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 임직원들은 매월 약 1억 2,000여만 원의 정기 기부를 통해 1년간 15억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할 계획이다.



S-OIL울산복지재단, 설맛이 백미 나눔

S-OIL울산복지재단이 울산 사랑의열매에 1억 원 상당의 백미 1,610포(20kg)를 전달했다. 전달된 백미는 울산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이다. S-OIL울산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20년간 총 80억 원 상당의 백미를 설 명절 때마다 저소득 가정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S-OIL(주) 이영백 부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맞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한국생활건강, 착한소비 업무 협약 체결

경기 사랑의열매와 (주)한국생활건강이 착한소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한국생활건강은 마스크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며, 연간 기부 목표 금액은 2,500만 원이다. 또 협약식 당일에는 마스크 6,000장도 함께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주)한국생활건강 관계자는 "착한소비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지정공(주), 나눔명문기업 가입

대지정공(주)(회장 조효상)이 1억 원을 전달하며 경기 사랑의열매 12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성금 1억 원은 용인시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조효상 회장은 "나눔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행복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대지정공(주)은 지난해에도 1,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경기북부



파주상공회의소 박종찬 회장, 파주 11호 아너 가입

파주상공회의소 박종찬 회장이 아너로 가입하며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 신축년 첫 아너가 되었다. 파주상공회의소는 파주 지역의 유일한 종합 경제 단체로 연중 저소득 소외 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등 체계적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종찬 회장은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 나눔네트워크 업무 협약으로 지역 연계 강화

지난 2월 3일 남양주시복지재단 출범과 함께 생활 속 나눔 실천 '사랑의열매 남양주 나눔네트워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배분과 모금 등에 대한 효율적 업무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남양주시, 남양주시복지재단 삼자 협약으로 진행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남양주 지역 중심의 민간 자원을 확대·발굴하고, 복지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



(주)승화썬크루즈 박기열 대표, 법인과 함께 나눔 실천

강릉 정동진의 랜드마크 관광시설인 (주)승화썬크루즈 박기열 대표가 1억 원 완납과 함께 강원 아너 소사이어터 83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날 (주)승화썬크루즈도 1억 원을 완납하며 강원 4호 나눔 명문기업으로 가입해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도 동시에 고액 기부를 실천했다. 박기열 대표는 “사랑의온도답의 나눔온도가 높은 것을 보고 나눔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릉 동화가든 박양희 대표, 강원 84번째 아너

지난 2월 3일 강릉 맛집으로 알려진 동화가든의 박양희 대표가 1억 원을 약정하며 강원 아너 소사이어터 84번째 회원이 됐다. 가입식에는 강릉시 김한근 시장,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강릉 권역 이상욱 아너 대표와 강릉 아너 회원들이 참석했다. 박 대표는 “나눔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한 뒤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며 나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충청북도의회, 설맞이 불우 이웃 돕기 성금 전달

지난 1월 27일 충청북도의회(의장 박문희)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성금 20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박문희 의장은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전달돼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1년 신년 화두인 ‘가치기재(可致詞諮)처럼 충청북도의회는 도민과 항상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소방본부, 착한일터 ‘가치기재 충남119’ 협약 실시

충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15일 충청남도소방본부 조선호 본부장, 충남의용소방대연합회 류석만·박효숙 회장과 함께 ‘가치기재 충남119’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개인당 하루 119원씩을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기금을 사랑의열매가 운용해 이웃에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불의의 사고로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도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도움 예정이다.



프로 골퍼 김해림, 팬클럽 해바라기와 함께 차량 나눔

KLPGA 프로 골퍼 김해림(소속 삼천리)과 팬클럽 해바라기(회장 이희진)가 지난 2월 6일 (사)어울림(구 상당uni-share)무료급식공동체에 3,0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3인승)를 지원했다. 김해림 프로는 “(사)어울림에 기관 소유 차량이 없어 후원 물품을 수령하거나, 무료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옮길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번 지원으로 어르신들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솔로몬산업주식회사, 나눔명문기업 기입

지난 2월 16일 솔로몬산업주식회사(대표 유종국)가 1억 원을 기탁하며 충남에서 여덟 번째로 나눔명문기업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30년간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온 유종국 대표는 가입식에서 “평소 기업을 운영하며 회사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하고자 마음속으로 약속하고 있었다”며 “오늘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통해 충남 지역 나눔 열기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전북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임직원 급여 1% 성금 전달

지난 2월 1일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성금 2,095만 7,686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전북은행 전 임직원의 급여 1%를 모아 마련한 것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전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급여 1% 성금은 저소득 임산부 가정을 위한 '출산육아용품 지원'과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한가득 간식상자' 등의 사업으로 사용한 바 있다.



진안군 백운면, 일십백천만 프로젝트 업무 협약 체결

전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2월 17일 백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흰구름 공책 만들기'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백운면의 지역사회 문제는 공동체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으로, 1년에 10만 원 이상 100명이 기부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일십백천만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비를 모금한다. 기부금은 미끄럼 방지 매트 지원, 작은 목욕탕 이용료 지원, 협의체 의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남



도내 사회복지시설·위기 가정에 10억 6,979만 원 지원

전남 사랑의열매가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53개소, 저소득 위기 가정에 10억 6,979만 원의 배분금을 지원했다. 53개소는 지난해 접수한 신청 사업을 심사해 선정했으며, 프로그램 사업과 시설 및 장비 개·보수 등의 기능 보강 사업에 7억 8,179만 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배분금 2억 8,800만 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 위협을 받는 위기 가정에 22개 시군을 통해 긴급 생계비로 지원했다.



(주)SD바이오센서, 3억 원 상당 코로나19 진단 키트 기탁

지난 1월 28일 (주)SD바이오센서가 3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3만 개를 전라남도청에 기탁했다. 이 진단 키트는 신속 항원 검사용으로 지난해 9월 WHO(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 전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허가를 획득했다. 기탁받은 3만 개 중 1만 개는 지난해 말 도내 요양병원 종사자 전수 검사에 사용했으며, 2만 개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취약 지역 외국인 과노인·장애인 시설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경주시 복지시설 2곳에 차량 2대 전달

지난 2월 18일 경북 사랑의열매는 입소자와 이용자의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복지시설 2곳에 차량 2대를 전달했다. 경북 사랑의열매는 매년 차량 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에서는 경주의 2개소에 차량을 지원했다. 지원 차량은 교통 약자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중한 성금으로 지원받은 차량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웃사랑 행복나눔 기부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정철)는 지난 2월 19일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는 매년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으며, 지난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해 1,800여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정철 회장은 “지역 전문 건설인들의 마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에게 작은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김종길 회장, 나눔리더 가입

지난 2월 16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김종길 회장이 경남 나눔리더 236호에 가입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경남 사랑의열매 장기철 회장은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이끌어가는 동역자인 김종길 회장의 나눔리더 가입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좋은 귀감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관내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위아 임직원, 저소득 아동에게 신학기 책가방 지원

현대위아(사장 정재욱)는 지난 1월 29일 신학기를 맞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밝은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책가방 구입비 1,200만 원을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1%를 모아 지역사회를 돕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 ‘1% 가적’ 캠페인을 통해 마련했다. 기탁받은 성금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 140명에게 책가방을 선별했다.

제주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설 차례상 비용 2억 원 기탁

지난 2월 4일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본부장 문상철)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제주 사랑의열매에 2억 원을 기탁했다. NH농협은행은 매년 설맞이 이웃사랑 성금으로 1억 원을 기탁해왔으며, 올해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1억 원을 추가 기부했다. 기탁금은 도움이 필요한 2,000가구에 설 차례상 준비 비용으로 10만 원씩 지원했다.



브런치 카페 '돈테일러익스프레스', 착한가게 캠페인 동참

도내 유일한 미혼모 자립 기반 브런치 카페 '돈테일러익스프레스 (Don Taylor Express)'(대표 임애덕)가 지난 2월 3일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돈테일러익스프레스는 제주 사랑의열매 미혼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5월 도남동에 개소했다. 카페 수익금은 미혼모의 사회적 기능 회복과 자립 기반 마련, 취업 연계와 창업 지원 등에 쓰고 있다. 이번 가입으로 돈테일러익스프레스는 매월 수익의 일부를 제주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



사회복지기관 대표 3명, 배분 기관에서 기부자가 되다

지난 2월 17일 장애인보호작업장인 에코디자인 오완열 원장과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임명옥 센터장, 노인 시설인 평안의집 한미희 원장이 나눔리더에 동시 가입했다. 이들은 배분 기관 대표로서 평소 장애인, 봉사 활동, 노인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세종 사랑의열매 흥영섭 회장은 "배분 기관에서 기부자로 변모한 세 분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부 챌린지 성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재공·이재경)가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 중 '나눔으로 하나 되는 기부 챌린지' 캠페인을 전개해 나눔문화의 확산을 이끌었다. 이번 기부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을 독려하고자 시작했으며, 다음 기부자를 지목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캠페인은 지난해 기부 규모보다 68% 증가한 2,300여만 원이 모금됐다.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중앙 320호

김영철 배우
"나눔이란 사랑이다!"



중앙 329호

권순택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생계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중앙 331호

김성철 삼성디스플레이(주) 사장
"나눔이란 참된 기쁨입니다."



서울 311호

故 김중찬
"나눔이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서울 312호

서재영 NH투자증권 PB강북센터 상무
"나눔은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곧 나의 행복입니다."



부산 215호

배진수
"봉사와 기부가 일상이 되고,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216호

이은화 화성P&F 대표
"봉사로 함께하는 마음, 나눔을 실천하는 내가 행복합니다."



대구 169호

이성혁 교동면옥 가맹본사 대표
"가장 어려울 때 주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구 172호

김은주 가담 Tea&Gallery 대표
"차(茶)의 온기 같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어 내 자녀뿐 아니라, 모든 이웃이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광주 118호

이복재 (유)다산실업 대표이사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둔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주 119호

손영술 (주)미래전기 대표이사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나 남기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나눔이었습니다. 친구와 나눔의 꿈을 함께 이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 243호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사회 공헌 사업에도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경기 245호

문동균 공단기 강사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기쁜 마음을 잊지 않고 좋은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83호

박기열 (주)승화씨크루즈 대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사랑의 온도가 높은 것을 보고 나눔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원 84호

박양희 강릉 동화가든 대표
"나눔을 실천하며 스스로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만큼,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전남 106호

심병수 심병수신경외과의원 원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극복해나가길 바랍니다."



경남 133호

강동욱 대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세상에 부자는 많지만, 나눔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경남 134호

서영욱 (주)화인테크놀리지 대표이사
"제 진짜 기술은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제주 113호

김경용 거부양돈 대표
"나눔이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경기 익명

충남 익명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 호 독자의견



“9억 가진 사람이 10억을 채우려고 더 욕심을 부린다”는 옛말이 있는데, 평생 팔죽 끓여 모은 12억 원을 기부한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 김은숙 대표님의 기사를 읽으면서 ‘아!! 돈은 이렇게 의미 있게 쓰는구나’ 느꼈습니다. 피란길에 먹은 단팥죽 한 그릇의 맛이 지금까지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팔죽을 직접 만들게 되셨다니 그 맛을 꼭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 조건희, 경기도 부천시



미혼 시절 사회복지사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때문인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음악교육을 진행해 전문 연주자를 양성하고 있는 ‘드림위드 앙상블’의 활동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웠습니다. 밴드팀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격한 응원을 보내며, 장애 청소년들이 재능과 실력을 마음껏 펼쳐 세상을 향한 두드림을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은순, 전북 남원시



고사리손으로 사랑의 온도를 올린 어린이 기부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부와 나눔은 거창하거나 큰 것이 아닌,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본받을 점이 많고, 기부 금액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어른들한테 일깨워주어 고맙습니다.

- 오은경, 부산시 연제구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마감 일자** 매월 20일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파우치(색상 랜덤)



마스크 스트랩(색상 랜덤)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돈 꺼 줘 기부하는

찍어! 찍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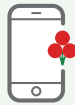
방탄
이거 QR 코드야!

스마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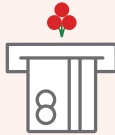
작은 마음으로 큰 기적을 만드는 소중한 다수의
나눔을 기다립니다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